

항공·고무·플라스틱 업계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부,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
고용조정 불가피 시 지원금 제공
거래금액, 매출액 50% 차지하는
협력 사업주도 완화 대상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항공운송업(H51)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하고 대신 휴업·휴직을 택할 경우,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원유수급 차질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석유정제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당 요건을 우선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항공 및 플라스틱 업계까지 넓힌 것이다.

특히 항공운송업의 경우, 지난달 27일 열린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항공업계는 항공유 가격이 지난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4월 둘째 주



중국의 관광 성수기로 통하는 노동절 연휴(6월 1~5일)가 시작됐으나 중국발 항공편 취소가 지난해 대비 두 배 감소한 가운데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한 중국 항공사 부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6.44달러로 두 배 이상 폭등하자, 비용 부담에 따른 노선 감축과 고용 조정 위기를 호소해 왔다.

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나프타 수급난과 원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지난 2월 대비 4월 들어 약 70%가량 치솟았다.

이번 조치로 지원 요건이 완화되는 대상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 4개 업종이다. 아울러 이들 업체와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을 차지하는 협력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은 매출액 감소 기준을 엄격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업종 상황 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환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9개 평가 분야서 성과 인정 받아

성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소기업부 주관의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aT는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 9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두루 인정받았다.

지난달 28일 중소기업부가 발표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 공사는 2021년부터 2025년도 평가 결과까지 5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올해 국내 133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aT 포함, 단 10곳만이 이룬

특히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 수출 첫걸음부터 정착까지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 ▲스마트 APC 구축·운영 유통 혁신 성과 창출 ▲협력 중소기업에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제공 등의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했다.

그 결과, ‘2025년 동반 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를 선진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5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은 상생협력을 위한 aT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aT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동서발전과 6개 풍력발전 출자회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풍력발전 설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재생에너지 설비·안전관리 강화

풍력발전 출자회사 6곳과 간담회

안전 관리 체계 혁신 방안 ▲출자회사 지원을 위한 모회사 내 전담 조직 신설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풍력발전 출자회사들과 손잡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설비 신뢰도 확보와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29일 대전 소재 재생에너지저 안전경영실에서 6개 풍력발전 출자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설비·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출자회사의 설비 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설비·

아울러 동서발전과 발전설비 안전과 설비 신뢰도 확보를 위해 모회사 및 출자회사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재혁 동서발전 조달협력처장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각 출자회사가 가진 설비·안전관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출자회사의 실질적인 안전과 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ADB, 아태 지역 ‘핵심광물 안보’ 동맹

공급망 구축 공동 금융지원 ‘맞손’
가공·정제·제조공정 수행 지원
최대 5억 달러까지 금융역량 집중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59차 ADB 연차총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DB가 새롭게 도입한 ‘핵심광물-제조 금융 파트너십’의 일환

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무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광물 처리 및 제조 분야 프로젝트에 최대 5억 달러까지 금융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개도국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면서 한국의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는 상생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에기평, 직무급 인상·출산축하금 신설

노사 합의 전격 체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직무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뜻을 모았다.

에기평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노동조합(노조)은 지난 4월 30일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강화 ▲출산축하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 합의를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입된 전 직원 직무급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올해는 전 직무의 직무급을 인상해 전체 보수 중 직무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했다.

이는 단순히 보수 총액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직무의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에기평은 또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제도도 전격 신설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조성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송수원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은 물론, 저출생 극복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모두가 행복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항만공, 공공기관 3곳과 청년창업 지원

사회연대경제 육성 박차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역대 공공기관 3곳과 공동으로 청년창업 사업화 및 창업초기 지원금 지원에 나선다.

5일 공사에 따르면 IPA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인천대 창업지원단 산하 (주)아이엔유파트너스와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소셜캠퍼스 온 인천’에서 체결된 협약에서 이들 4개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정책 이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셜캠퍼스 온 입주기업 및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예비)창

업자 사업화 지원 ▲초기 창업기업 고용 지원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협약은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육성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인천 소재의 공공기관들과 대학이 함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련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경제 활동이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모델이다. 특히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